

# 경불련 '2세대 시민운동' 첫발

### 내부 진통 딛고 3년만에 정기총회 개최 상임대표에 도영 스님...조직혁신 나서

최근 3년여간 조직 내부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경계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가. 내후으로 중단됐던 정기총회를 3년만에 재개, 새출발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월 25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에 힘을 실었다. 이날 경불련은 불교시민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맞는 활동을 펼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하고 '제2세대 시민운동'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조직의 민주성, 사업의 공개성, 재

정의 투명성을 조직혁신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정한 경불련은 흐트러진 조직·후원체계를 다시 세우고 창립취지를 살린 자비실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회칙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상임대표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선출했다. 또 자비집 대표 해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연기영 동국대 교수, 이인자 경기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 공동 운영체제를 마련했다.

창립멤버인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상임고문을 맡아 '제2세대 시민운동'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한다. 새 상임대표 도영 스님은 "경불련이 창립 15주년을 맞는 2006년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방향성과 비전을 찾아 나가는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걸음씩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경불련은 이날 산하기구인(사이웃을 돕는사람들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새 이사장에는 지현 스님이 선출됐으며, 운영위원장과 기획단장에 임호정 前 시민연대위원장 조 오용승 봉사자 교육팀장이 각각 선출됐다. 박영명 기자 bypark@buddhapia.com

## 나눔의 집 요양원 언제쯤 세워질런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네요. 위안부 요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2006년 3월 1일 '3·1절'을 맞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83)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나눔의 집 요양원 부지에 "마음을 담은 나무(유심수)"를 심기위해 찾아온 후원자와 일본 도쿄대학생 40여명이 함께 했다.



## 황우석 연구재개 기원 촛불집회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단체와 회원 4000여명은 3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연구 재개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를 열었다(사진). 불교계에서도 동학사, 정암사, 봉영사 등 비구니강원의 학인들과 황우석지지 불자모임 등이 참석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집결한 참가자들은 무대 중앙에 대형 태극기를 내

걸고 이날을 '세계 과학 수호의 날'로 선포했다. 이들은 또 '미즈메디는 황우석의 즐거움을 반향하라' '서울대 조작보고서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도종기술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30여 참가자들은 조계사에서 집회장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집회에 참석했다. 박영명 기자

## 종평위, 신년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2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종교평화위는 정례회의와 전체회의, 집행위원회 수련회,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

겠다고 밝혔다. 제1차 워크숍은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제로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또 5월에는 이웃 종교와의 친선 축구대회의 '희망 월드컵'을, 9월에는 이웃종교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 조계사 청년회 정기법회 3000회

### 29년동안 주2회 꾸준히 이어져

조계사 청년회 정기법회가 어느덧 3000회를 맞았다. 1977년 2월 15일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 지 29년여만의 일이다. 29년이라는 세월동안 매주 두 차례의 정기법회를 이어오면서, 청년불교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한 것이다. 이같은 뜻깊은 날을 기념해 조계사 청년회는 2월 28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성 스님은 조계사 청년회 발족에 산파역할을 하는 등, 조계사 청년회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법회에는 지성 스님(동화사 주지)을 비롯해 도문 스님(조계사 부주지), 범성 스님(조계사 사회국장),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성 스님의 법문 외에도 박희정 조계사 청년회 회장의 기념사와 내·외빈들의 축사, 격려사, 공로상 수상식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지성 스님은 "도를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라며 "선도 버리고 악도 버려 간택심을 떠나면 그냥 그대로 자유인이다. 대장부"라고 설했다. 이어 청년회에 소속된 찬불가 동아리 '소리마루'와 풍물원 등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박희정 회장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한주에 두 번의 법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3000회 법회라는 금자탑을 이뤄냈다"며 "법회 활성화 위한 모임을 조직해 효율적인 법회 운영과 지속적인 실행활동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는 1977년 6월 4일 창립된 이래 1993년에는 대법회 직할 청년회로 단체지위가 격상되었으며 2002년에 제2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최우수지구상을 수상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은희 기자

## "습지-지하수 상관관계 있다"

###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2월 지울 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합의했던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측과 천성산대책위원회측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공동조사단은 2월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하수, 구조지질, 암석역학, 지구물리, 생태계 등 5개 분야에 걸쳐 조사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생태계를 제외한 4개 분야는 합의를 이뤘으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각각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조사에서 1994년과 2003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와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무제치늪과 대성늪 등 천성산 고산습지가 지하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터널을 굴착할 때 단층대를 만날 경우 지하수 유출이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도룡봉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지하수 유출이 있더라도 습지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던 고속철도 시설공단측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터널의 공법이 애초부터 배수터널 공법이며, 지하수 유출량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습지와 지하수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조사결과를 대법원에 계류중인 '도룡봉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고속철도시설공단측은 "무제치늪 등 고산습지는 지하수 용출 보다는 강수에 따른 지표수로 유지되기 때문에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이 습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반해 천성산대책위원회는 "지하수와 계곡수에 변화가 발생할 때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조사결과와 관련 종교·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성산연석회의는 "공동조사 결과보고서가 도룡봉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유의미한 자료로서 활용될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박영명 기자

## 진료하고 공양하니 보람 두배

### 신행단체 6곳 손잡고 남양주서 봉사



"눈이 많이 침침해. 글씨가 잘 안보여." 할머니, 아무래도 노안이 오신 것 같네요. 여기 드리는 약 고약박과 받으세요."



이날 6개 단체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봉사와 무료점심공양을 펼쳤다.



이날 6개 단체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봉사와 무료점심공양을 펼쳤다.

3월 1일 남양주시 남양주지체장애인협회 회관에서는 경찰병원 불자회 회원들이 부지런히 지역 독거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기도 지역 내 보건소 불자들이 재활봉사를 도맡고 있다. 진료가 끝난 어르신에게는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이 다가와 환히 웃으며 무료 점심공양을 대접한다. 노인회관 3층에서는 삼익한의원장 성덕 스님의 점심봉사도 한창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6곳이다. 경찰병원불자회와 경찰

청불자회, 남양주·파주·고양·김포 보건소 불자들, 남양주 무량사, 삼익한의원,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등 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청불자회 경승 흥선 스님(무량사 주지)의 덕택이 컸다. 흥선 스님은 의술봉사활동을 펼치는 경찰청불자회와 남양주시 공무원불자회와 연결해 장소를 물색하고 천수천안자원봉사단에게도 뜻

을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은 이날 오후 4시를 훌쩍 넘겨 끝났다. 총 150여 명의 지역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이명애 단장은 "여러 신행단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펼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남양주=이은비 기자

## 평불협, 北에 비누공장 설립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상임대표 범다, 이하 평불협)는 3월 3일 한국외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남북교류 교류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불협은 올해 생필품 지원, 세탁비누공장 설립, 비료 100톤 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비롯해 통일환경백일장 개최, 통일교육원 개원, 지역본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명 기자

## 죽음준비 프로그램 진행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3월부터 10월까지 죽음준비프로그램 '사(死)는 기쁨'을 진행한다. 3월 2-30일 총5회에 걸쳐 죽음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동아리별로 죽음 토론 및 장묘상당봉사활동, 영정사진촬영, 호스피스시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39-9503 이은비 기자

# 법주사 대응보전 삼존대불 복원불사 발원

불자 여러분! 만나기 어려운 법주사 대응보전 복원과 삼존대불 복원불사의 인연을 만났으니 신심을 일으켜서 불사에 동참, 복전(福田)을 일구어 나갑시다. 삼존대불에 금옷을 입혀드리는 개금불사(改金佛事)와 복장(伏藏:다라니경, 불경, 법주사 소장된 경판인경본, 성물, 금등의 수백점)을 봉안하여 법광(法光)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는 원만 구족한 부처님의 성상(聖像)을 복원하여 모시고져 합니다.



- 1. 개금불사 (改金佛事)**
  - 부처님 1분 복원시주 : 인연단월자
  - 동참시주 (노임포함)
    - 금박1속(100장) ..... 20만원 / 금분1통 ..... 10만원
- 2. 복장봉안**
  - 1) 경전사경
    - 금강경 1권당 ..... 10만원
    - 법화경 1권당 ..... 10만원
    - 대비주 3판(신묘장구대다라니경) 2장 ..... 5만원
    - 두루마리 천수경 1권당 ..... 100만원
  - 2) 성물 : 금, 기타성물
    - ※ 동참자 시주록에 등재하여 봉안합니다.
- 3. 불사안내 (개금불사 / 복장 봉안불사)**
  - 1) 법주사 대응보전 삼존대불 개금불사에 동참하여 복(福)을 지읍시다.
  - 2) 삼존대불에 사경, 다라니 등 복장물을 봉안하시고자 하는 분은
    - ① 사경책을 가져가신 분은 사경이 끝나는 대로 가져오세요.
    - ② 새로 사경하시고자 하는 분은 원주실에서 사경책을 가져가세요.



- ◆ 계좌번호 : 농협 403020-51-027336 (예금주: 법주사)
- ◆ 문의전화 : 원주실 043)543-4755, 1574 사주실 043)543-3615, 8655
- ◆ 접수기간 : 佛紀 2550(2006)年 (음) 윤 7월 15일까지 예정

##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道空 合掌